

민간공원 특례지구, 학생 배치 어떡하나

광주시 대책 미루다

뒤늦게 시교육청에 협의 요청

공원 9곳에 아파트 신설

학교 신설도 증축도 난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선결과제인 '사업대상지 학생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학생배치 문제가 사업 시행의 막판 압축로 떠올랐다.

학교 신설·증축 등으로 대상지 내 학생 배치 문제를 확정하지 않고선 공원 개발을 위한 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 시로부터 뒤늦게 학생배치 문제 협의 요청을 받은 광주시교육청이 기존 학교 시설 재배치, 증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선정에만 열을 올리고,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학생배치 문제 처리를 미뤄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량·마복·송암·봉산공원 등 1단계 4곳, 중앙·중외·일곡·운암산·송정·신용공원 등 2단계 6곳이다. 사업공모 접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재공고하기로 한 송정공원을 빼면 모두 9곳이다. 각 사업대상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 거리는 1.5k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신규 아파트 단지 학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업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1단계 송암, 2단계

운암산·중외 등 3개 공원 주변 학교에서는 추가로 학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암공원 주변 효천초등학교는 이미 과밀에 시달리고 있다.

운암산 공원 인근 한울 초등학교, 중외공원 인근 연제 초등학교도 인근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요가 급증해 수용 여력이 없다. 이처럼 기존 학교 활용이 어려운 3곳에서는 학교 신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보상, 공원 개발 면적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가 땅이 마련된다 해도 교육부의 학교 신설 허가나 예산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늦게 불거진 학생배치 문제해소라는 압축에도 시교육청은 느긋하다.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심의 전 학생배치 문제 해소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주체는 시교육청이 아닌 광주시와 사업자 소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차례 협의요청에도 광주시가 학생배치 문제 협의는 뒷전에 두고 사업대상지 사업자 선정에만 골몰

한 '원죄'도 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은 일방통행식 개발행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기 전 입주 가구 학생 배치 문제를 해소하라는 취지다.

정종재 광주시 부시장이 지난 14일 시교육청을 찾아와 학생배치 문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요청한 것도 2020년 6월 공원구역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완료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학생배치 문제를 교육청 청사 이전사업의 호기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운데 하나인 중앙공원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 내에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광주시와의 학생배치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사업자 양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청사 이전이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직거래장터...“싱싱하네요” 설 연휴를 10여일 앞둔 22일 북구와 농촌시도사회광주북구지산지회가 북구청광장에서 연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24일까지 열린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친일 작곡가 만든 교가 당장 폐기하라”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성명

친일잔재 조사를 통해 드러난 친일 작곡가의 교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광주 주요 학교의 교가 등에 친일잔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어 “어떻게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제창시킬 수 있느냐”면서 “민족의 혼을 말살시킨 반역자의 정신이 담긴 교가는 당장 폐기 조치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광주시가 공개한 친일잔재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각급 학교 교가의 작사·작곡가 중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 4명의 이름이 확인됐다.

▲ 전남대, 송일중·고(현재명) ▲ 호남대, 서영중·고, 서연대, 금호중앙중·금호여고, 대동고, 동산중·고(김동진) ▲ 광복중·고(김성태) ▲ 광주일고(이흥렬) 등이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불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3배 비싼 목장 자연치즈서 대장균 검출

소비자원 2개 제품 적발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자연 치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목장 자연치즈는 일반 치즈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 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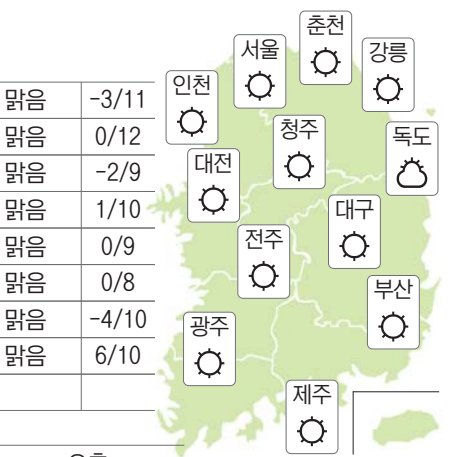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달뜨기 20:19
해질 17:51 달짐 09:11

출근길 운전조심

큰 일교차로 안개끼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1/11	보성	맑음	-3/11
목포	맑음	2/10	순천	맑음	0/12
여수	맑음	3/12	영광	맑음	-2/9
나주	맑음	-3/11	진도	맑음	1/10
완도	맑음	3/11	전주	맑음	0/9
구례	맑음	-2/11	군산	맑음	0/8
강진	맑음	-2/11	남원	맑음	-4/10
해남	맑음	-3/10	흑산도	맑음	6/10
장성	맑음	-4/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서~북서	1.0~1.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매우 높음
감기	나쁨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43	03:24
21:20	16:10	
여수	04:19	10:53
	16:53	23:03

◇주간 날씨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	☀	☀	☀	☀	☀	☀
-4/9	-2/7	-2/4	-3/5	-2/6	-3/6	-2/6

눈 소식 감감...광주 이달까지 적설량 '0'

광주의 적설량이 전혀 없는 등 눈 소식 이 드문 겨울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광주와 전남에 눈이 내리는 날은 없겠다. 대륙고기압에서 성질이 변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맑은 날이 많았다.

기상청은 3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해 봄기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6개월간 광주와 전남의 누적 강

수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 기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광주·전남 강수량은 살펴보면 누적 강수량은 38.5mm로 최근 30년 평균(58.2mm)의 66%에 머물러 있다.

적설은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기상청 기준으로 0c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올겨울 평년과 다른 동아시아 부근 공기 흐름 탓에 찬 기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등 눈구름대 발생 횟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남구 '불법 주정차 참관제' 작년 2500여건 적발

광주시 남구가 지난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를 시행해 2516건을 적발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 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6년 계도 1620건, 단속 540건 ▲2017년 계도 1640건, 단속 680건 ▲2018년 계도 1730건, 단속 786건 등 총

6996건을 적발했다. 남구는 적발사태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참관제 참여 범위를 청소년에서 주민까지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 2명을 선발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자원봉사센터 또는 남구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